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

존경하는 민병주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영한 의원(중구 제1선거구)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현재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전·월세 종합

지원센터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서울특별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현실을 서울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빌라왕·건축왕 사건을 통해 전세사기가 조직적 범죄로 진화했음이 밝혀진 데 이어 이번엔 기업형 사기의 전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사회초년생은 물론이고 전세살이를 오래 해본 중장년 층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음에,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단을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사기 대안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세 사기에 대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기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이 검·경 등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